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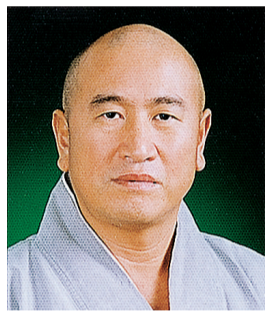
무공저

경청은 사랑의 표현

좌절과 절망으로 외롭고 슬플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로 인해 좌절을 이겨내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된다. 꼭 말로 위로해 주고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저 곁에서 진심 어린 태도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나 혼자만 아 니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힘이 생긴다.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공감해 주기보다 지적이나 훈계, 비판이 뒤따라서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가 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그를 찾는다. 생판 모르는 사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 그의 쓰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중상
(청계사 회주)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축으로 삼는 현대사회에서 군중 속의 고독은 필연이다.

개인주의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자본주의로 물질적 소유욕을 한껏 발산하며 풍요를 얻는 대신 우리는 단절과 소외를 대가로 치른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 마음이 힘든 것인데 대부분 혼자 힘들어 한다. 사회와의 단절감에서 오는 우울증과 다양한 형태의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저 따뜻하게 들어만 준다. 아픈 사람도 답을 알기에

무한 경쟁 사회 인간은 단절과 고독 다양한 관계망을 그리며 살때 '행복'

단지 공감하고 같이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 경청은 사랑의 표현이고 최고의 사랑이다.

일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남자, 나를 대여하라'라는 특이한 서비스업이 있다고 한다. 고객의 의뢰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는 서비스를 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같이 먹거나 마시고,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고, 질문하면 짧게 대답한다.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도 않는다. 도쿄에 사는 모리모토(38세)라는 청년이 개발한 서비스로 자신의 존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리모토가 가장 많이 받는 의뢰는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상대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실연, 이혼, 어떤 실패 등으로 괴로울 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게

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멋진 식당에 가서 누군가와 식사라도 하고 싶을 때, '식사 하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기도 불편할 때,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를 고용한다.

사람은 다양한 관계망을 그리며 살았을 때 행복해진다. 온 우주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깨고 자기 삶을 아이와 남편, 아내와의 관계로 국한시키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다.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연결감을 느낄 때 행복한 것이 사람이다. 친한 친구와 길게 연결했을 때, 나의 모습이 그 사람 눈에 비쳐서 가지 있게 느껴질 때 행복하다.

같이 있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파스함이 아쉬운 시대이다. 각자 누군가 한 사람과만 함께해주어도 세상은 덜 삭막할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거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행복한 모습으로 나투스 거란 믿음을 갖고 정진하라

지난 12일 청계사 앞마당에서 9시 30분 영가님들을 위한 백중 회향 관육기도가 시작됐다. 관육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사시기도로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사부대중은 지극 정성을 다했다.

청계사 앞마당은 축제 분위기 같지만 엄숙한 자세로 기도에 임한 신도들로 가득 찼으며 각각의 신도들은 소구소원 하는 바를 마음 깊이 서로의 기도에 힘을 보탤다.

이날 성행 주지스님은 "백중날은 7월 보름 스님들 하안거 마치는 날이며, 효를 실천하는 날이며, 봉사하는 날이며, 마음을 내는 날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신도분들도 기도를 통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조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영가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에 정진하라"고 법문을 하고 신도들과 함께 기도 정진에 임했다.

이날 청계사 한 신도는 "세상의 가장 짧은 단어도 최고의 기도가 엄마 인것 같다. 목련존자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도 백중날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목련존자에게 더욱 감사하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엄마, 엄마, 엄

마하고 불러본다. 엄마는 영원히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불렀다.

이렇게 일 년에 한 번씩 49일 동안 진행 된 2022년 백중기도는 여법하게 마쳤고, 기도에 임했던 신도들은 뿌듯한 마음을 갖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절 문을 나서는 것 같았다.

(글 황청량님)



영가님들의 천도를 위한 승무단원의 승무와 장엄 염불로 영가님들의 위패와 봉송계로 회향전송하는 모습.



(사진 황청량님)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영동한 약을 먹은 사람

배가 불러 죽을것 같이 어쩔줄 몰라

○.....부처님은 일생동안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의 처방에서 어긋난 적이 없다. 언제나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대방이 가장 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처방해주셨다. 부정확한 지식은 고통을 초래하지만, 정확한 지식은 도에 이르는 지름 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변비약을 잘못 복용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듯이 정확한 지식도 없이 행동으로 옮기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액을 당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지식에 의해 열려 있는 눈으로 행동함으로써 언제나 즐거운 성취 속에서 육

옛날 어떤 사람이 변비가 심하였다.

의사가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관장을 하여야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은 관장할 준비를 하고 관장하려 했다.

의사가 오기 전에 그 사람은 관장약을 먹고서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이 어쩔 줄 몰라 했다.

의사가 그 까닭을 이상히 여겨 그에게 물었다.

"왜 그러는가?"

그는 대답하였다.

"아까 그 관장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나무랐다.

"너는 너무 어리석어 아무 방편도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곧 다른 약을 먹여 토하게 한 뒤에야 나왔다.

그리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예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선관(禪觀)의 갖가지 방법을 뒤엎어 할 때 부정관(不淨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수식관(數息觀)을 익히고 수식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육계(六界)를 관한다. 그리하여 위, 아래를 뒤바꿔 근본이 없이 한갓 신명만 허비하여 그 때문에 지치게 된다. 좋은 스승에게 묻지 않고 선법(禪法)을 뒤바꾸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더러운 것을 먹는 것과 같다.

신과 정신을 다스린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지혜로운 중생으로 보고 계신다.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바르고 유익하게 이끌어 갈 줄 안다는 것이다. 인간이 바르고 유익한 삶을 이끌어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서 놓고 병들

어 죽는 모습을 볼 때, 그것에 대해 방종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가다듬어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우쳐 놀라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보여주신 평화의 즐거움으로 향하는 삶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에 열중해야 하겠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안양교도소
 - 일동포장기계 150부
 - 김희용 50부, 김정중 50부
 - ♣ 수원구치소
 -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 정순준 50부, 김대희 50부
 - 조용민 100부
 - ♣ 경주 교도소
 -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 이고는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 손준형 50부, 김윤호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학업(대학수능) 성취 정진기도

50일 특별기도

- 일 시: 9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 108염주 알 꿰기
- 동참금 2만원(종무소에 신청)

21일 특별 철야기도

- 일 시: 10월 28일~29일 금요일 (무박2일)
- 인덕원 미가참치 앞 출발
- 장 소: 경주 석굴암(철야기도 후 불국사 새벽예불)
- 동참금: 20만원

7일 사중 철야기도

- 일 시: 11월 11일 금요일
- 밤 9시 ~ 12일 토요일 새벽 3시
- 철야기도 후 합격다라니 드립니다.

회향기도

- 일 시: 11월 17일 목요일
- 오전 8시 40분 ~ 오후 5시
-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문화재청 소청제명선신진언

전통사문문화재 활용사업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
2022년 2월~11월

청계사 경관학교(교육)

- 각자장에게 직접 배우는 경관형 안내관 제작 교육

내 손안의 청계사(답사/체험)

- 청계사 일대 미션답사와 편린도 영주 펄피 만들기 체험

신도원에서 나의 아이템 찾기 (미술체험)

- 불화 이수자와 함께 신도원에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그려보는 체험

신도원에서 나의 아이템 찾기 (음악교육)

- 신도원에 있는 아이템 '비파'를 직접 배우고 연주해 보는 교육

문의: 네이버 카페 검색
문의: 070-4290-6967

문화재청, 소청제명선신진언, 청계사,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선요

우리나라 조사선의 전통이 뿌리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요(禪要)>는 중국 남송시대 임제종의 맥을 이은 고봉(高峰)스님의 법문집으로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인스님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고봉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본래성불(本來成佛)과 순간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해 참구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화두를 참구해서 확철대오에 이르는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주>

仰山老化尙의 법을 이을 것인가 하는 의심을 통한 글 (通仰山老和尚疑嗣書)

한 글구를 맥연히 타파하고 飛飛騰騰,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난 것과 같았습니다. 어찌 백 이십근 짐을 놓아버린 것 같을 뿐이었습니까? 그날이 신서 삼월 이십이일 小林(달마대사)기일 이었습니다. 마침 그해 나이가 二十四세라, 三년 기한이 차서 문득 남명사에 나아가 인가(決)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어찌 炎天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고향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곧 여름이 풀려서야 바야흐로 南明에 이르러 한바탕 허물을 드러니 室中에 비록 여러 차례 단련함을 입어서 공안을 분명히 알아서 또한 사람의 기만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을 열면 心下에 아득함을 알게 되어 日用中에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이 남의 빛(부채)을 갚지

한다 하였더니 오년을 지난 뒤 하루는 암자에서 잠자다가 잠이 깨어 바로 일(하루)을 의심했는데 홀연히 함께 자던 道友의 베풀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맥연히 의심 덩어리를 타파하니 그 물속에서 뛰어 나온 거 같았습니다. 일전에 의심했던 불조의 著說(흔잡하여 풀기 어려운 한) 公案과 고금의 차별인연을 추억하니 흡사 四州에서 큰 성인(관세음보살)을 친견한 것 같으며, 먼 객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 원래 단지 옛 사람이라 옛날 행하던 곳을 고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로부터 나라를 편안히 하고 나라를 평정하여 천하가 태평하여 한 생각도 함이 없이 온 세계(十方)를 깔고 앉아 버렸습니다. 위에서 고백한 바는 모두 사실 이오니 바라건대 존자(雪岩)께서는 특히 자비를 드리우

청정본연의 혜일(慧日)이 번뇌의 구름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기인과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었는가?

못한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저 한 바가 있어 종신토록 시봉하려 하였으나 뜻 밖에 동행인 澤兄이 他山の 행이 있게 되어 문득 좌하기를 떠났습니다. 乙丑년에 이르러 老化尙이 도량에 가서 방부를 지을 때 또 의지함을 얻어 따라 모시고 천령사에 나아가는데 중간에서 일간 浩浩寺(浩浩는 대의 뜻)에 도리어 주를 지었느냐? 질문하심을 읽고 “주를 지읍니다” 대답하니 또 문외 꿈꿀 때에도 주를 짓느냐? 주를 지읍니다. 잠잘 때에는 꿈도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거니 주가 어느 곳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바로 대답할 말이 없고 가히 펼 이치가 없었습니다. 화상이 도리어 부촉해 이르되 오늘부터는 너에게 불법을 배우기 요치 아니하고 너에게 고금을 연구하기 요치 아니하니 단지 주리던 밥 먹고, 곤하면 잠자고 깨면 정신을 가다듬어 나의 깨달은 주인공은 필경 어느 곳에 있어 안심 입명할 것인가? 하라 하셨습니다. 비록 믿음을 얻어 미처 이 말씀을 준수하나 자질이 느리고 둔하여 천천히 밝히기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龍鬣(寺名)의 행이 있을 때 곧 스스로 맹세하되 일생을 버려 한낱 바보 같은 놈이 될지라도 결경코 一著子를 명백히 보지요

시어 자세히 보십시오. 室中三關(실중삼관) 첫째는 “고일당공(高日當空)에 무소부조(無所不照)한데 인심피편운차각(因甚被片雲遮却)고?”라는 문제이다. 즉 “밝은 해가 허공에 높이 떠서 비추지 아니한 곳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조그마한 구름의 가림을 입는고?”라는 말이다. 둘째는 “인인유개영자(人人有箇影子)하야 촌보불리(寸步不離)라 인시답불착(因甚踏不着)고?”란 문제이다. 즉 “사람 사람마다 모두 그림자가 있어 한 치도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밟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라는 말이다. 셋째는 “진대지(盡大地)가 시개화경(是箇火坑)이라 득향삼매(得向三昧)하야 불괴소각(不被燒却)고?”라는 말이다. 즉 “온 세계가 모두 불구덩이이다. 어떤 삼매를 얻어야 타지 않겠는가?”라는 물음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질문은 청정본연의 혜일(慧日)이 번뇌의 구름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고, 둘째는 자기문제(자기인과)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며, 셋째는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다. 덕민스님(불국사 승가대학학장)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화경

화성유품(化城喻品) 줄거리 <상>

조선시대 세조가 수양대군이던 시절 아버지 세종의 명으로 자신이 쓴 ‘석보상절’과 세종이 쓴 ‘월인천강지곡’을 합한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이후 최초로 나온 불교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묘법연화경 스물여덟 품의 삼주는 세 가지 일이 족한 것이다. 법설주(法說周)와 유설주(喻說周)와 인연설주(因緣說周)이다. 법설주는 상근을 임하시니 방편품이고, 유설주는 중근을 임하시니 비유품이고, 인연설주는 하근을 임하시니 화성유품이다. 근이야 비록 셋에 별었으나 가르침은 통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화성유품(化城喻品)’은 인연설주 가운데 부처님의 정설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서 부처님은 속세의 인연을 설명하신다.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먼 옛날, 온 우주의 땅을 모두 아주 가는 먼지로 뿜아서 일천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개씩 떨어뜨려서 그 먼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의 숫자와 같은 무수점 전의 옛날에 대

통지승여래가 있었다. 이 여래는 무수겁을 정진하여 부처님이 되었는데 출가하기 전에 16왕자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수행하여 성불했다는 말을 듣고 왕자들도 수행을 결심하고 아버지 부처님을 찾아갔다. 대통지승여래 아버지는 왕자들의 소청을 받고 그들을 위해 사성제와 십이인연의 법을 설해 주셨다.

16왕자들이 다 동자로 출가하여 사미가 되니 전륜성왕이 이끌고 온 팔만억명이 따라 출가하였다. 대통지승여래가 사미들의 청을 받아 2만점 지나서야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니 16사미는 다 수지 하여 통달하였다. 대통지승여래가 묘법연화경을 8천겁동안 쉬지않고 설하신 후에 팔만사천겁 동안이나 선정에 드니, 16의 보살 사미들도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읽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활기분해될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불경연구가 페이옹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각기 법법에 올라 팔만사천겁 동안 법화경을 설하니 육백만억사우타 항하사 중생들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부처님은 자신도 그 16사미 중의 하나라고 밝히신다. 16사미 보살이 다 부처님이 되어 각각의 세계를 담당하는데, 서방의 부처님은 아미타이고 동북방 사바세계부처님은 자신인 석가모니 라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성문 연극의 이승으로는 궁극의 열반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저 유명한 ‘환상의 성’의 비유를 설하신다. 보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많은 사람이 멀고도 험난한 길을 나선다. 그러나 보배를 찾아 길을 나선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서 더

가지 못하겠다고 인도자에게 말한다. 인도자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방편을 쓴다. 가령 5백리를 목표로 갈 때 3백리쯤에 화성 즉 환상의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쉬게 한다. 그 화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완전히 약도를 면하고 보배의 장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인도자는 알게 된다. 그래서 인도자는 그들에게 지금 쉬는 곳은 환상의 성일 뿐 궁극의 도달점이 아니며 뒤로 돌아가지면 3백리를 가야하고 앞으로 보배가 있는 장소를 향해서 가려면 2백리만 가면 된다고 말해준다. 이 비유를 설한 부처님은 성문 연극의 이승들도 지금 얻은 것을 궁극의 열반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하신다. 그것은 화성과 같은 과정의 것이니 궁극의 일불승을 향해서 새롭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유 속에서 부처님은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요 방편으로 화성을 만드는 도사이다.

하근기대상 전세 인연을 가차해 묘법 전해 ‘환상의 성’비유...궁극 향해 새롭게 나서야

뉴스&뉴스

‘칠원성군’ 칠석기도 봉행

지난 8월 4일(음력 7월 7일) 사시기도 후 산신각을 비롯해 각 전각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칠원칠석 기도를 봉행 회향했다. 기도에 앞서 주지 성행 스님은 코로나19 종식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간절히 발원했다.



이어 삼삼각 밑에서 정타스님과 원당스님, 원덕스님의 기도도 동참한 불자들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불공과 칠성기도를 드렸듯이 온 몸이 맘에 다 젓도록 ‘칠원성군’을 찾으며 염주를 굴리며 소구 소원하는 바를 기도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스님들은 찬 음료와 수건으로 간간히 더위를 식히며 불자들이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글 심대덕님>

2023년 수능 100일 기도 입제

긴 장마가 잠시 멈추고 청계산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던 8월 10일 사시 예불을 마치고

어린이법회

‘더위야 함께 놀자, 신나는 스카우팅!’ 불교스카우트 창립10주년 기념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즐기며 더위 극복

지난 8월 5-7일 다양한 활동 즐기며 2박3일 동안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성행스님)이 경남 하동

설법전에서 주지스님을 비롯해 수행생 학부모 50여명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수능 100일 기도를 입제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오랫동안 자녀들 뒷바라지 해오던 중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력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건강과 지혜의 가피를 얻자.”라고 법문했다.

성건스님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뜻을 잘 세워서 경안하게 기도에 집중하고 반야 지혜를 얻자”라고 기도 정진 자세를 설명하였다.

신도회장(홍무상행)은 “오늘 입제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절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텐데 100일 동안 스님과 기도 정진 잘 하시고 신도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다.

매일 사시에 불과 오후 2시에 수행생을 위한 특별 기도는 원덕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되며 수능 전 50일 기도, 수능 전 21일 기도(석굴암 철야기도), 수능 전 7일 사중철야기도, 수능일 과목 시간별 예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글 서용화>



청계사이야기 인쇄소 (경관학교) 수료식

8월 20일 선불장에서 2022년도 전통문화재 활용사업의 왕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경관학교) 수료식을 거행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이날 지난 4월부터 10회에 걸쳐 진행한 경관 학교 과정을 이행한 1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한편 “목판 인쇄와 목판화의 전통은 소중한 인쇄 문화로서 천년고찰 청계사에서 인쇄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런 일이다.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게우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이공임이 지도해 주신 국가무형문화재 정찬민 각자장님을 비롯하여 실무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청계사 목판(제135)’을 활용한 경관학교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의왕시, 청계사, 컬러엔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가 주관하여 청계사 및 의왕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무안내판으로 제작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향후 청계사 이야기를 목판 안내판으로 제작해서 보급 설치할 계획이다. <글 이현숙>

랑, 레일바이크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무더위를 이겨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장 성행스님은 청소년수련원에서 대만 국제불광회 중화불광스카우트 야오렌리 집행장과 대만스카우트연맹 창원신 사무부총장의 예망을 받고 2023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캠프리와 관련,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글 주향진>

사진으로 보는 캠퍼리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101

관음성지 ㉔

수국사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연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수국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세조임금은 1457년 8월, 세자 덕종이 어린 나이로 숨을 거두자 이듬해 백성에게 부답을 주지 말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소하게 절을 지어 덕종의 넋을 위로할 것을 명하여 착공 1년 만에 완공하여 정인사라고 하였다.

그 뒤 1471년(성종 2) 불 인수대비가 이 절을 중창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궁중에서 절약한 물품을 쌀과 배로 계산하여 경비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대왕대비는 국민을 부역시키지 말고 노역에 대한 샅을 주도록 하였다. 당시 주변 지역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사람들이 다투어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 해 10월 절을 완공하였는데, 총 119칸이었다.

인수대비의 중창 이후 절의 역사는 잘 알 수 없으나, 그 뒤 불타오르자, 1900년 초 월초 거연이 고종의 도유를 받아 다시 중창하였



◇황금보전에 봉안되어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다. 1995년 주지 한자용이 법당 안팎을 금으로 개금한 황금보전을 신축하였다.

건물로는 황금보전과 대웅전, 관음전, 요사채 등이 있다.

유물로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미륵불입상과 관세음보살입상이 있다.

이 절은 왕실의 비호를 받았고, 서울과 가까운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름 있는 학자와 문필가들이 이곳을 찾아 많은 글을 남겼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정인지·최한·서거정·

이 통통하고 양감 있는 윤곽은 개운사 아미타상과 유사하고, 반쯤 뜯 눈과 도톰한 인중, 양감 있는 뺨과 턱은 봉림사 아미타상과 비슷한 편이다. 이마가 봉림사 불상처럼 넓고 눈썹사이에 표현된 것과 코가 긴 것은 개운사 불상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곧고 긴 코와 아담한 코끝 모양은 장곡사 약사불의 코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와 유사한 머리와 얼굴형태의 불상은 1313년 작된 천사 불두이어서 주목된다.

법당 안팎을 금으로 개금한 황금보전 '특색' 최고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580호

노사신·성임 등이 이 절을 소재로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수국사 황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1239년경 전후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 목조 아미타불상이다. 보물 제1580호. 높이 104cm로 연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목불상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모두 36종 84점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복장품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건장하게 보이는 이 불좌상은 육계가 큼직한 편인데 중간 계주가 높게 솟아 있으며 나발은 작고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타원형인데 뺨

상체는 당당하면서도 건장한 편이고, 어깨가 팽팽하고 볼록하며 U자형으로 터진 가슴에 둥근 양쪽 가슴 사이로 둥근 배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상체는 개운사 아미타불상과 연관성이 없고, 봉림사 아미타불상과는 둥근 배 표현이 없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하체는 오른쪽이 왼발 위로 올려진 항마좌의 자세인데 양쪽 무릎이 높고 큼직하며 안쪽으로 각을 이루고 있는 형태는 역시 봉림사 불상이나 개운사 불상과 동일한 것이다.

<정리 여여광>

사찰음식 배워보기 호박잎 된장 수제비

*재료: 밀가루 2컵, 호박잎 5장, 애호박 1/3개, 감자 1/2개, 청양고추 1개, 된장 2T, 간장 2T, 소금 1/2t, 물 8컵, 식용유 1t

- *만드는 법: 1. 밀가루에 물, 식용유, 소금을 넣고 반죽한다. 2. 호박잎은 익혀 줄기를 제거하고 손으로 치대어 파란 물을 버린다. 3. 감자와 호박은 채 썰고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4. 냄비에 물을 넣고 된장을 풀고 끓으면 감자, 호박잎을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반죽을 얇게 떼어 넣고 호박과 청양고추를 넣고 끓인다. <정리 주향진성> 5. 마지막에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옛날 중국 사람들 가운데 숫자를 이름으로 갖는 경우가 있었다. 이중 일부는 별명이나, 일부는 그들의 실제 이름이다. '조(焦)46'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원사가 살았다. 46은 매우 세심하고 노련한 정원사였다. 그는 많은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원예에는 어려서부터 경험이 쌓였다.

모두가 그의 기술을 칭찬했지만, 곤충들에게 자비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많은 정원사들이 불가피하게 곤충들을 죽인다. 그러나 46은 벌레들이 그의 식물을 위협하진 안하건 죽이지 즐겨하는 것 같았다.

어느 더운 여름날 46이 셔츠를 벗고 정원의 꽃을 손보고 있을 때, 개미구멍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매우 깊어 보였고 앞뒤로 움직이며 일하는 개미들로 득실거렸다.

"바로 이 때다!" 46은 특 말하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차를 만들기위해 팔팔 끓고있는 큰 독에 물을 퍼와 개미 구멍 속으로 쏟아 부었다. 모든 개미들이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90 46의 종말

데어 죽었다. 그러나 46은 매우 재미있다는 듯 콧노래를 불렀다. 개미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고 모

붉은 점마다 개미 한 마리씩 기어나와

든 개미가 데워죽은 그날이후에도 46은 여전히 꽃과 채소들을 재배해 시장에 내다팔았다. 열심히 돈을 모아 마침내 결혼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었다. 30세가 넘는 46의 친구들은 이미 자식들도 있었다.

"미스 장(張)2가 내 여자야. 그녀는 매력적인 얼굴과 내가 이제까

지 본 중에서 가장 희고 귀엽고 부드러운 작은 손을 갖고 있지. 아버지께 중매쟁이를 시켜 일을 주신 하도록 요청해야지."

46은 더 행복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의 팔에 가려운 작은 붉은 점이 생긴 것이다. 그것을 긁자, 더 가려워졌다. 그래도 그는 계속 일했다. 그러나 날이갈수록 작은 붉은 점은 더욱 가려워지고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상체 전부에 작은 붉은 점들이 생겼다. 너무 가려워서 연장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긁었다. 더 많이 긁을수록, 더욱 가려워졌고, 더 많은 붉은 점들이 생겼다. 그는 등을 나무에 대고 비볐고, 가슴과 팔은

손으로 긁고, 다리는 발로 긁었다. 그럼에도 너무 간지럽자 그는 긁어서 피부를 열었고, 놀랍게도 각 붉은 점마다 개미 한 마리씩 기어나왔다. 46은 가려움과 놀라움에 고통을 겪다가 며칠 후 죽고 말았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광스님>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정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정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더위와 함께 살아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교육 실시



땀통 같은 여름철 무더위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무더운 여름 폭염에 거주인들과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운 시간을 피하고 보양식과 충분한 잠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식중독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여름도 녹향원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 간호사 이승희〉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월이월금, 수입, 지출, 차기이월금. Total revenue: 3,240,000; Total expenditure: 3,392,405.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7월 1일 ~ 2022년 7월 31일)

- List of donors and amounts: 직접후원 (5,000원~10,000원~20,000원), 자동납부 (5,000원~10,000원), 물품 후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구연산, 파리바게트인덕원점, 최희용-수박).

물품 후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이회용티셔츠, 세제, 스카우트 탭, 네일케어4종세트, 구연산, 수딩젤로션, 세탁비누, 세탁망, 유아빨대컵, 베이킹소다, 티셔츠, 일회용마스크, 파리바게트인덕원점-빵, 유병주-아이스크림, 임유경-수박, 참외, 청계사-과일, 현영선-자두, 수박, 최희용-수박, 파인애플, 윤성우-수박, 유육남-바나나, 명성FMIC-빵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백중

우란분절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안거를 마친 승가에 공양을 올려 공덕을 짓는 날입니다. 우란분절(盂蘭盆節)은 우란분제(盂蘭盆齋) 또는 백중이라고 하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를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를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질러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안거 마치고, 어머니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을 올렸고, 이후에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의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불교성전〉의 제3장 2절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통해 올바른 보시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보시입니다. 경전에서 보시의 이익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셀 수 있는 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보시를 실천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음력 7월 15일은 스님들의 안거가 끝나는 시기이며 농사짓는 이의 입장에 서도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작물이 무르익어가

는 시기이며, 게다가 보름달이 뜨는 보름날이니 그야말로 최고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라고 하겠습니까. 1년 중 아주 좋은 날을 기준으로, 목련존자의 효심을 생각하면서 우란분절을 결정으로 삼아 49일 또는 21일 동안 기도 정진하는 것은 참으

보시는 공양을 받는 대상, 공양 올리는 사람의 마음 모두 청정해야 최고의 공덕

와 공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보다 승가에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큼니다. 보시라는 선한 행동은 그 사람에게 공덕(功德)이 되어 돌아옵니다. 모든 보시는 공양을 받는 대상, 공양물, 공양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청정해야 최고의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되는 보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보시하는 것, 법을 보시하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베풀 수 있는 보시, 환한 얼굴의 보시, 말의 보시, 몸의 보시, 마음의 보시, 자리의 보시, 집의

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기도기간을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백중기도 기간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던지 원력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백중기도는 대체로 긴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실천할 내용을 원력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중기도 기간 만이라도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여 안부 여쭙기를 실천하겠다'는 것 일주일

에 한 번씩 봉사활동 하는 것들도 훌륭한 원력이 되겠습니까.

생활의 지혜

• 누런 옷의 표백 빨래에는 굴집질 이용 산지 얼마 안되었음에도 금세 누렇게 변하는 속옷의 제 색깔을 살리는 데는 몸에 별 큰 안 좋은 표백 약품보다 굴집질이 더 효과적이다. 먹고 난 굴집질을 모아 두었다가 말려서 물에 끓인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빨 속옷을 몇 분 정도 담가둔 다음에 꺼내서 맑은 물에 행구면 천도 상하지 않고, 눈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되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 양배추를 한개밖에 전부 벗기려면 양배추로 씹을 해 먹기 위해서는 잎을 하나씩 일일이 벗겨내야 해 번거롭다. 그러나 양배추의 가운데 심을 도려낸 후 큰 그릇 속에 뒤집어 담아 놓고 그 구멍을 통해 뜨거운 물을 붓는다. 양배추가 흠뻑 젖도록 부은 후에 뚜껑을 덮고 잠시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껍질을 벗기면 바나나 껍질처럼 쉽게 벗겨진다. (정리 황청량님)

이달의 후원금

금 3,240,0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자님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354-A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해의 지혜

〈정리 심 대덕님〉

Table with 8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column contains a brief description of the sign's characteristics and advice.